



하늘에서 본 아즈치 성터 (安土城跡)



아즈치 성터의 지형 모형 (시가 현립 아즈치성 고고 박물관 소장)

【교통편】

JR비와호선 아즈치역에서 도보 25분
 JR아즈치역 앞에서 렌트 자전거, 역에서 약 10분
 JR아즈치역 앞에서 택시, 역에서 약 5분



【입장】

- 입장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계절에 따라 변경있음)
- 입장료 성인 700엔, 초등학생, 중학생 200엔

발행 : 시가현 박물관 활성화 추진위원회

편집 : 시가현립 아즈치성 고고박물관

〒521-1311 滋賀県近江八幡市安土町下豊浦6678
 Tel.0748-46-2424 Fax.0748-46-6140
 e-mail : gakugeti@azuchi-museum.or.jp
 URL : http://www.azuchi-museum.or.jp/

 **平成29年度 文化庁 地域の核となる美術館・歴史博物館支援事業**
 Support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in the fiscal 2017

국가 특별 사적 아즈치(安土)성터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통일의 거점으로 쌓아 올린 성—



아즈치 성터 출토 금박 기와 (시가현 교육위원회 소장)

시가현 박물관 활성화 추진위원회

시가현립 아즈치성 고고 박물관

아즈치 성의 역사

아즈치 성은,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통일의 거점으로 하기 위해, 덴쇼 4년(1576)에 쌓아올린 성입니다. 축성에 앞서,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3년 후인 덴쇼 7년(1579)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천주(천수각)이 완성되어, 노부나가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덴쇼 10년(1582) 노부나가의 사후, 천주와 혼마루는 불타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덴쇼 13년(1585)에 노부나가의 아들인 오다 노부카츠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굴복하며, 오다 가문이 천하를 지배하는 시대는 끝이 나고, 아즈치성은 그 역할을 마치고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 후, 노부나가 아즈치 성 안에 세워둔 소우켄지(惣見寺)가 성의 명복을 빌어가며, 현재까지도 성터를 지켜왔습니다.



발굴된 화재의 흔적 (시가현 교육위원회에서 제공)



구워진 기와나 도자기 등 (시가현 교육위원회 소장)

아즈치 성터는 쇼와 27년(1952)에 일본의 특별 사적에 지정되어, 문화재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시가현 교육위원회는, 아즈치 성터를 먼 미래까지 보존해, 광범위하게 활용해 나가자 해이세이 원년(1989)부터 해이세이 20년(2008)까지 「특별사적 아즈치 성터 조사 정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기초해, 정문 주변에서부터 쿠로카네(黒金)문 유적에 이르는 정문 거리와, 길가에 있는 구루와(曲輪)의 정비나, 돌담, 돌계단의 복원 등이 이뤄졌습니다.



발굴된 주요 도로(大手道) 흔적 (시가현 교육위원회에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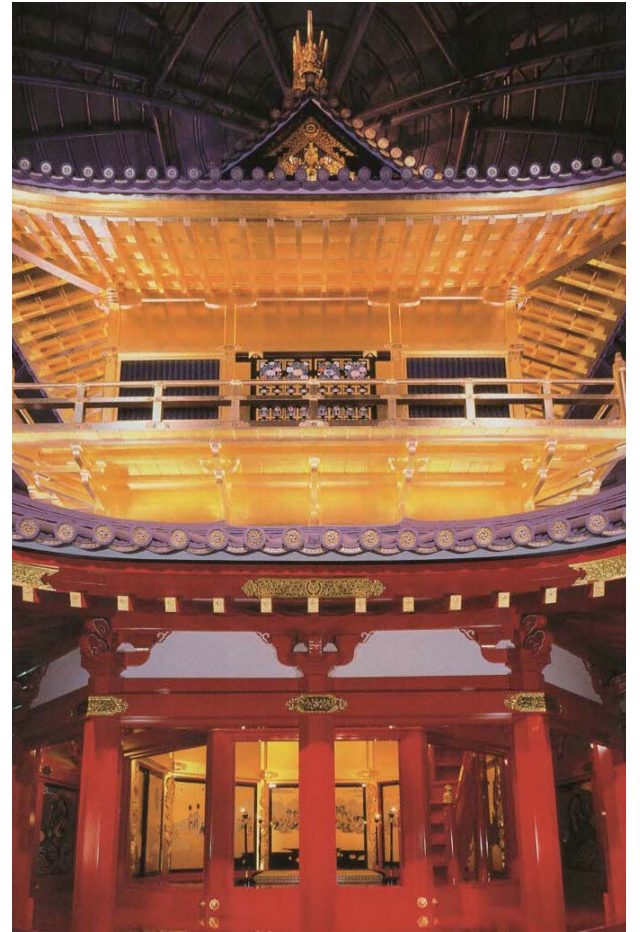


복원 정비된 주요 도로(大手道)

아즈치 성의 구조

아즈치 성은 이전의 성곽과는 달리, 전투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닌, 정치와 지배를 중점으로 둔 「보여주기식」 요소가 강한 성곽이었습니다. 특히 천주의 화려함은 정치적인 어필로써,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즈치 성에서 채워진, 돌담 위에 우뚝 솟은 고층의 천주나 기와 등의 요소는, 이후의 성곽에서도 계승됩니다. 그 점에서 아즈치 성은, 일본의 근세 성곽 건축의 출발점에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렇지만 산기슭에서 나타나는 방어기능이나 능선에 전개하는 성벽 등의 구조는, 아직은 전란의 시대였던 양상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아즈치 성은 중세부터 근세로의 과도기라는 시대를 반영한 성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장 아즈 치성 복원 천주(天主)

[아즈 치성 천주 "노부나가의 관", 나이토 아키라 (内藤昌)복원 감수]